간편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작성… 실거래신고·확정일자 원스톱 처리, 은행대출 우대금리 등

전주시는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18일 당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중개 행위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이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 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 우체국 365코너에서 폭발물 의심 오인신고

전주의 한 우체국 365코너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오인신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인후동 동전주우체국 현금인출기 코너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여행용 가방이 있다"는 경비업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후 군 당국의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가방을 수색했다.

발견된 가방(가로 34㎝, 세로 55㎝)에는 옷가지 등이 들어 있었으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방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현금인출 후 놓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결핵 취약집단 이동검진

전주시는 결핵 감염 시 확산이 우려되는 단체생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동검진을 한다.

시 보건소는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48개소 입소자, 고등학교 32개소 2·3학년 학생 등 2만 385명을 대상으로 결핵 취약집단 이동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동검진을 통해 흉부 X선 촬영과 결핵 관련 교육·상담 후 기침 예절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결핵 이상 소견자에게는 보건소에서 2차 검진 후 환자로 등록, 무료 투약을 통한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결핵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00% 완치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누구나 전주시보건소 결핵실(063-281-6345~6)에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지난 16일 익산시 웅포면의 한 야산에 버려진 채 발견된 익산시의 공문과 '익산이야기'. 이 공문과 소식지는 성묘를 위해 선산을 방문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뉴시스, 사진=시민 제공

공문서가 선산에?… 익산시 허술한 관리

A씨 선산의 검은 봉투 쓰레기에서 공문과 '익산이야기' 나와

익산시의 허술한 공문서 관리가 시민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6일 시민 A씨는 성묘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익산시 웅포면에 위치한 선산을 찾았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조상에게 올려 새해 인사를 하려했으나 순간 기분을 망쳤다.

선산에 버려진 검은 봉투의 쓰레기를 발견한 것.

더 황당한 것은 이 봉투 안에는 익산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과 함께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익산이야기'가 함께 버려져 있었다.

이 공문은 웅포면장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 빈집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의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면장의 직인은 물론 면장과 담당계장의 이름까지 명시돼 있었다.

더욱이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해 혈세를 들여 만든 익산이야기 40~50부가 함께 버려져 있었다.

A씨는 선산에 버려진 쓰레기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식지와 공문이 함께 버려진 사실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허술한 공문서 관리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것 같아 시의 행정에 불신마저 갖게 됐다.

A씨는 "쓰레기를 남의 선산에 버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만든 소식지까지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넘어 시 행정에 대한 반감까지 생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빈집현황 조사를 위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이 문서를 배포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추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설 연휴 도내 형사사건 소폭 감소

15일~18일까지 63건 발생… 지난해 대비 12.5% 감소

올해 설 연휴 전북지역 형사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형사사건이 63건으로 지난해 대비 12.5% 감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한 검거율이 지난해 63.9%에서 올해 77.8%로 13.9% 상승했다.

발생한 유형별로는 폭력사건이 42건, 절도사건이 19건, 성범죄 2건이 발생했다.

주요 검거사례로 지난 17일 오후 2시05분께 전주시 효자동 3가 한 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가 CD기 위에 현금 60만원을 올려놓은 사이 훔쳐 달아난 A(45)씨를 신속한 출동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검거해 구속시켰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계획해 금융기관, 금은방,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과 취약지역 집중순찰 등 주민밀착형 탄력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금융기관·빈집절도예방 위주의 경찰력 집중배치와 협력치안 등의 순찰활동을 실시해 왔다.

한편, 도내 교통사고 발생 또한 지난해 87건에서 올해 59건으로 3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3일까지… 4개 분야 120명

전주시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1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각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에 이어 추진하는 이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인원은 총 120명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여에 걸쳐 일반노무와 행정업무로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주요사업 내용은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 등 4개 분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야간대, 방통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의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미만 단순노무의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 1일 3만 5,120원, 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4시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전기자동차 70대 보조금 지원

3월 2일~8일 신청

전주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70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급사업 신청은 19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해 제작사별 영업소에서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 후 본인이 시에 직접 제출, 자동차 영업소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승용·초소형 등 15종으로 보조금 지원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한다.

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차량 출고 날짜를 사전에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한다. /채규남 기자